

停年의 길목에서

車 柱 環

(서울大 中語中文學科)

1

'85학년도에 내가 서울대학 전임교수로 재직하는 마지막 해다. 제 2 학기에 담당한 강의들을 이미 다 종강하였으니, '86년 2월말에 가서 정식으로 정년퇴임한다고는 하나, 이제는 서울대학에서의 내 전임교수로서의 직무를 마무리지어 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서울대학에 취직하고 연구와 강의를 담당해 온 지도 32년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한 차례 내 교수생활을 돌아보는 것도 전연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다.

동양에서는 옛부터 노후생활의 초탈하고 안온함을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관례같이 여겨져 왔다. 노경에 접어들어서는 마치 은사가 된 양 세속의 번잡과 인연을 끊고 한유하게 세월을 보내는 초탈한 면을 詩文으로 엮어 내고는 했다. 이번 학기에는 학부 강의로 中國散曲選讀을 담당했다. 지난번 종강하는 날 읽은 散曲作品 가운데 張可久(약 1270~1350)의 人月圓이 들어 있었다. 人月圓은 곡조명이고 제목은 〈山中書事〉로 되어 있다. 산중에 살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人月圓의 곡조에 맞춰 써 낸 작품인 것이다. 張可久는 漢人으로서 蒙古族의 치하인 元代에 사느라고 才智가 출중했지만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 다만 당시 유행하던 산곡의 작가로 특색 있는

작품을 계속 써 내어서 두각을 나타냈다. 張可久는 80여 세의 장수를 누리는 동안 산곡작가로 활약하는 한편 漢人이 할 수 있는 지방관속이나 권력자의 막료 같은 일을 하기도 했고 그러는 동안에 중국 각지를 떠돌아 다니기도 하였다. 그러한 張可久가 노경에 접어들어 산중에 물러나 살면서 지난날을 생각하며 자신의 초탈하고 안온한 노후생활을 써 낸 것이 人月圓의 〈山中書事〉이다. 우리말로 옮겨 보던 다음과 같다.

흥망이란 천고에 걸친 변화한 꿈이거니와
나의 시를 찾는 눈은 하늘 한 가에서 지쳐버렸다.

공자묘의 수풀
옷나라 궁궐의 단초
축나라 종묘의 열시냥스런 까마귀

두어 칸의 초가집에
만 권의 책 들여놓고
늙어 일자리 내놓고 시골집에서 산다
산중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던
송화르 술을 빚고
봄철 물로 차를 끓인다

人月圓 山中書事

興亡千古繁華夢，詩眼倦天涯。孔林喬木，吳宮
蔓草，楚廟寒鴉。數間茅屋，藏書萬卷，投老村
家。山中何事，松花釀酒，春水煎茶。

元代는 몽고족이 흥성해서 중국 전역을 통치
하던 시대로 漢族은 피지배자의 처지에서 몽고
족의 억압을 받고 살았다. 唐代에는 漢族이 가
장 흥성했던 시대였기는 하나 말기에 이르러 극
도로 쇠퇴해져 五代十國의 혼란이 이어졌고, 그
후 漢族이 중국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北宋時代
로 접어들었으나, 북방으로부터의 遊·金の 압
력을 받다가 급기야는 金에게 멸망되었고, 강남
에서 南宋이 잔약한 데로 한동안 존속하기는 하
였으나 결국 몽고족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고 말
았다. 억압을 받으며 살아 온 漢族의 지식인인
張可久가 그의 만년에 이르러 이러한 역사를 훑
어 보았을 때 “홍망이란 천고에 걸친 변화한 꿈”
이라는 감개를 토로할 만도 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張可久는 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독서
를 즐기기는 했으나 학자는 아니었고 시인이었
다. 산곡도 광의의 시에 속한다. 그는 가는 곳
마다 시상이 우러나는 데로 그것을 산곡작품으
로 써 내고는 해서 드디어는 대가로 되기까지
이른 것이다. 張可久는 자기가 중국 자지를 돌
아다닌 것을 회고하면서 孔林과 吳宮과 楚廟를
대표로 열거했다. 孔林은 공자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중국 북동부이고, 吳宮과 楚廟는 양자강
이남의 중부중국이다. 지금 같은 그 정도의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극히 쉬운 일이지만 張可
久의 시대에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
이다. 그리고 물론 張可久는 이 3군데 이외에도
당시로서는 극히 먼 곳들을 두루 돌아다녔을 것
이다. 몇 살이나 되어서였는지는 몰라도 노경에
이르러 각지로 나다니며 시를 짓는 일을 그만두
고 村家로 물러나와 술이나 차를 즐기면서 남은
세월을 보낸 것이다.

張可久의 〈山中書事〉를 읽으면서 나는 시인은
아니었으나 학자로 살아 온 지난날을 되돌아
본다. 나는 일제시대에 20대 중반까지를 살아야
했으므로 망국의 비애를 느껴 보기도 하고 또 그
로 인한 고초도 당해야 했다. 일본의 패망을 보
면서 해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북 분단과 6·25

동란을 겪고 환도 후의 혼란 속을 살아 왔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어 온 일들이지만 “興亡千
古繁華夢”의 감개를 자아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그러한 세월을 살면서 오늘날까
지 책과 대결해 가며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하
는 일에 골몰해 온 것이다.

張可久의 시대와는 달리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외국어행도 현저해진 덕분에 나는 사실상 張
可久가 돌아다닌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세상
을 두루 돌아다녔다. 張可久가 “詩眼倦天涯”로
표현한 것을 나는 “學究倦天涯”로 바꿔 말한다
해도 결코 과장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국제학술
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또는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 여러 외국을 다녀온 것은 다 단
시일의 일에 불과했으므로 논외로 치다 하더라도
수 개월 또는 1~2년을 외국에 체류하면서 연구
나 강의에 종사한 일도 꽤 여러 차례 있었다.

환도 이후 대학이 많이 창설되었고 그 동안
각 대학이 엄청나게 비대해졌다. 그래서 교수의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되어 우리 학계는 공전의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외국
학술기관에서 연구한 경험을 갖기에 이르렀고 세
계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들도 적지 아
니 생겨났다. 그러므로 외국 학술기관에 가서
연구나 강의를 한 교수는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
을 뿐더러 그 방면에 있어서 오히려 나보다 더
빈번하고 활발하게 움직인 학자들이 많다. 다만
각자의 전공분야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방
향이나 성과에 있어 각기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2

1952년 가을부터 2학기 동안 대만대학 문학연
구소에서 특별연구생으로 있었던 것이 내가 외
국 학술기관에서 연구한 최초의 일이다. 그때
국내는 6·25동란이 계속되는 중이었고 대만은
국민정부가 대륙을 포기하고 대만으로 갓 천도
한 때였다. 당시 국내에서 전쟁과 피란의 복세
통에 학문하는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단을 내려 연구차
대만 대학으로 떠나기로 했던 것이다. 나는 당
시 30을 갓 넘은 나이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

로 몇 차례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보통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원을 거쳐 본격적인 학자생활로 진입하려는 단계에 다다라 있었다. 내 나이 또래로는 정규학교 과정에서 한문을 많이 배우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교양 정도의 수준을 그리 멀리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는 선친 誠菴先生이 한학자였던 관계로 집안에서 한문을 배울 기회가 많았다. 한문을 비교적 많이 배운 처지에서 대학의 중국어문학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나로서는 중국의 고전시대의 현대의 문학을 두루 이해하는 데 그리 큰 힘이 들지 않는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다.

대만대학 문학연구소에서 연구제목을 요구하는 데 따라 나는 〈莊子〉(南華經)의 연구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莊子〉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王叔岷 선생을 지도교수로 모시게 되었다. 王叔岷 교수는 나보다 7년이 연장이어서 당시 30대 후반의 소장학자였으나 실력이 인정되어 이미 정교수로 있었고 연보한 교수들이 많았으나 다 젊은 王叔岷 교수를 존경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王 선생은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의 研究員도 겸임하고 있었는데, 중앙연구원 이 北京에 있을 때 이미 〈莊子校釋〉(12권)을 출간하였고, 장편의 〈莊子部彙注校釋〉도 탈고하여 商務印書館에 원고를 넘기고 그 출간을 못 본 채 대만으로 피란와 있었다. 그 밖에도 〈呂氏春秋〉 〈孟子〉 〈淮南子〉 등 제자서의 校注도 간행한 바 있는데 후에 〈諸子校證〉으로 묶어서 단권으로 간행하였다. 그런데 王叔岷 선생의 〈莊子〉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제자서 연구는 그 기본이 原文校勘이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中國校勘學(勘經學)의 체계를 확립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중앙연구원총서의 하나로 나온 〈勘經學〉은 그의 주요 저서이기도 한다. 나는 국내에서 거칠어진 머리를 정리하기도 하고 진지하게 학문에 종사하는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莊子〉 연구에 몰입하기로 하였다. 대만대학에서는 강의나 연구에 있어 고전문학 일변도였고 근대 내지 현대의 문학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나는 다행히 한문을 많이 익힌 처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분위기에 적응하기에 그리 큰 힘이 들지 않았고 중국어는 이미 숙달된 단

계였으므로 필요한 강의의 청강이나 교수와의 대담에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王叔岷 선생이 자기 연구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어서 일요일만 빼고 매일 연구실에 나가서 공부할 수가 있었고, 일 주일에 2번 강의하러 나오는 王叔岷 선생과 정기적으로 만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우선 王 선생의 저술을 남김 없이 찾아내서 정독하고 의문이 있는 곳은 직접 정교하여 그의 학문 업적을 파악하고 학문 방법을 터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莊子〉 연구와 관계되는 자료로 대만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남김 없이 찾아내어 연구실에 비치해 놓고 莊子の 첫편인 “趙遙遊”의 편명부터 시작하여 諸家說을 유루 없이 참조해 가며 읽어 내려갔다. 그렇게 읽어 가는 어간에 자연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토구하여 무엇인가 의견이 생기던 그것을 원문과 함께 공책에 적어 두었다가 王 선생에게 대놓고 강평을 청하고는 하였다. 王 선생은 전연 귀찮아 하는 기색 없이 친절하고 간곡하게 비평해 주고 필요한 일들을 자상하게 일터 주고는 하였다. 나는 王 선생 같은 스승을 만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오늘날까지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변변히 보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꾸짖고 있다. 물론 王 선생과의 學緣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고 王 선생은 내 학문적인 성장을 위해 크게 힘이 되어 주었다.

나는 1953년 여름에 귀국하여야 했고 그 해 가을부터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맡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만대학 문학연구소에서 〈莊子〉를 연구하는 동안에 토구한 문제들을 정리하여 “讀莊偶拾”이라는 제목을 붙여 〈震檀學報〉에 발표하였다. 용어는 文言文(한문)이다. 최근 王叔岷 선생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莊子〉 연구를 종합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거의 완결짓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수일 전에 받은 편지에 졸문 “讀莊偶拾”에서도 20여 조를 뽑아 썼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 정도만 해도 나로서는 생광스런 기 그지없다.

王叔岷 선생의 지도하에 〈莊子〉를 연구한 덕분에 나로서는 校勘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또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훈련을 쌓기까지 하였다. 校勘學의 훈련을 철저하게 쌓게 되던 학문

하는 자세가 정립되게 된다. 나는 한자문화권에서 자라났다고는 하나 한국인이므로 중국 진적의 원문을 교감하는 일은 사실상 껍 대담한 일에 속한다. 한 한국인 학자로 <莊子>의 원문 중의 한두 문대라도 교감해 내서 그것이 학계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교감학을 수련하고 나서 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중국 문학 관계의 전적 가운데서 한 가지를 골라 철저한 교감을 가해 볼 희망을 갖게 되었으나 서울대학에 취직해서 강의를 맡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몰리고 하다 보니 그런 일에 손을 대볼 여유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58년에 하바드 엔칭(Harvard-Yenching)의 방문학인(Visiting Scholar)으로 초청되어 '60년까지 하바드에서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

하바드에서 2년 동안 연구생활을 하는 중에 나 자신의 교양을 위해 중국학과 문학평론 방면의 영어책들을 썩 많이 읽었고, 불어공부도 제쳤고, 하바드를 방문한 국제 학계에 명성이 자자한 석학들도 다수 만나서 학문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학문적으로 성장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나로서의 가장 큰 수확은 아무래도 하바드 엔칭 도서관의 풍부한 도서와 편리한 기능을 십분 이용해서 鍾嶸(약 463~518)의 <詩品>을 철저히 교감하여 그 성과를 정리해 낼 수 있었던 일이다. 종영의 <詩品>은 글자수는 3천자 안팎에 불과하지만 漢代에서 南朝梁代에 걸친 五言詩人 120여 명을 上中下 3품으로 나뉘어 간결하게 비평한 것으로 중국문학비평사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대단히 높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그 원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학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철저한 원문 교감은 시도되지 않고 있었다. 도서관 서가 사이에 설치된 널찍한 책상 하나를 배당받아 거기서 풍부하게 갖춰진 도서를 자기 서재의 책 이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며 종영 <詩品>의 교감작업을 진행시켰다. 王叔岷 선생과의 인연이 깊어서 '59년 가을에 王 선생도 연구차 하바드에 와 있게 되었다. 두 사

람은 하바드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더없이 기뻐하였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王 선생은 내가 하는 종영 <詩品>의 교감작업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내 작업의 진행을 지켜 보면서 많은 조언을 주었고 나도 수시르 문제를 가지고 거리낌 없이 칭교할 수 있었다. 나는 교감 결과를 정리해 가지고 <鍾嶸詩品校證>이라는 제목을 달아 역시 文言文으로 導言과 校證을 작성하고 校正本을 붙여서 그것을 일단 원지에 옮겨 油印本을 몇십 부 만들었다. 그때 錢穆 박사가 예일 대학에 초빙교수로 와 있으면서 초청강연을 하러 하바드에 들렀다. 그의 <中國文化史導論>을 번역 출판한 인연이 있어 쉽게 친숙해질 수 있었고 <鍾嶸詩品校證>의 油印本을 증명하여 교시를 청하기도 하였다. 후에 간략한 논평을 보내왔으나 이렇다 할 구체적인 지적은 없었다. 당시 하바드에 있던 洪業, 楊聯陞, 하이타워 등 교수에게도 유인본을 증명하여 교시를 청했다. 그 중에서 洪業 박사가 가장 진지하게 검토해 주었고 크게 도움이 되는 의견도 피력해 주었다.

4

'60년 여름에 하바드를 떠나 유럽과 대만을 거쳐 귀국하였다. 유럽에 들렀을 때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들러 敦煌寫本 중에 <詩品>의 원문이나 관련자료가 있지 않나 하고 찾아 보았으나 그런 것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대만대학에서는 몇 가지 자료를 구해올 수 있었다. 귀국 후 유인본에 수정을 가해서 같은 제목으로 <亞細亞研究>에 연재 발표하였고 日本 內閣文庫 등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續篇을 써서 역시 같은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다시 수정을 가해 단권본으로 만들었다. 이 <詩品>의 연구는 중국문학계에 다소간 자극을 주어 <詩品> 연구열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색 있는 예로 日本 京都大學 中文科의 吉田幸次郎·小川環樹 두 교수가 영도하고 立命館大學 中文科의 高木正一 교수가 주관하는 詩品研究班을 들 수 있다. '61년 11월에 학회관제로 일본에 갔다가 京都에 들러 吉田·小川

두 교수를 만나 〈鍾際詩品校證〉을 증명하고 달
른을 나누는 것이 기원이 되어 일본내 각 대학의
관심 있는 교수들이 대월 한 차례씩 京都에 모
여 〈詩品〉을 첫머리부터 읽어 내려가며 상세한
검토를 가하는 것으로, 일정한 단락을 지어 보
고를 작성 발표해 나가는 것이다. 원문 비판에
관해서는 내 校證을 철저히 검토 참고하였다.

이 시품연구반의 업적 중에서 특색 있는 점을
든다면 〈詩品〉 원문의 특법, 용어의 출처 추적
과 어의 구명, 평어의 비종 검토 등이 있다. 10
년 이상의 세월을 소비해서 마무리지었는데 그
성과를 高木 교수가 '78년에 〈鍾際詩品〉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여 부피 있는 단행본으로 출간
하였다. 끈기 있는 학문 태도에 경탄을 금할 수
없고 획득한 성과 중에는 경의를 표하기에 충분
한 부분이 적지 않다. 나는 이 일본의 시품연구
반에서 초청을 받았으나 나갈 기회가 마땅치 않
아 미루고 있었는데 '65년 가을에 臺北에 있는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방문학인으로 1년
동안 연구하러 가게 되어 그곳에 가는 길에 京
都의 詩品研究班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왕복
항공권과 후한 체류비의 공여에다 시중 상객
대접을 받았다. 이때의 詩品研究班은 내 강연을
주로 해서 모임을 가졌다. 나는 본래 중국어로
강연을 할 준비를 하고 갔었으나 회원 중에서
중국어로의 학술강연을 알아들을 인사는 한둘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나로서는 다소 힘든 일이
었지만 일본어로 강연을 했다. 90분 동안의 강
연이고 내용이 전문적인 것이어서 꼭 조심이 되
었지만 준비한 자료에 따라 침착하게 이야기해
나가 회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었다. 吉川 교수를
포함한 두세 회원의 질문이 있어 부연설명을 붙
여서 응답하고 강연회를 끝냈다. 강연 내용은
〈詩品〉에 대한 내 견해를 밝힌 것이다.

詩品研究班에서 강연한 이외에 京都大學 人文
科學研究所 平岡武夫 교수 주도하의 白氏長廣集
說會도 참관하였고, 廣島大學 中文科의 교수가
대학원생 상대로 六朝時代 詩文學에 관해서 간
단한 강연을 했다. 두 군데서 다 〈詩品〉에 관한
질문에 응답을 했다. 이러한 일정을 마치고 나
는 일본을 떠나 臺北으로 갔다.

당시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의 소장은 중
국 고고학의 개척자인 李濟 박사였고 각 분야의
대가들이 연구원으로 있었다. 연구소측에서 미리
배정해 준 구내에 있는 蔡元培紀念館의 방을 숙
소로 쓰게 되었다. 그때 마침 屈萬里 교수가 프
린스턴 대학의 초빙교수로 미국에 가 있어서 그
의 연구실이 비어 있었다. 연구소측에서 그 연
구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나에게 배정해 주
었다. 10여 년 전 대만대학 문학연구소의 특별
연구생으로 있을 때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연구
를 위한 조건이 월등히 좋아졌다. 나는 이때 劉
勳(약 465~521) 〈文心雕龍〉을 원문 교감, 용어
분석, 내용 검토 등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 정
리해 보기로 하고 곧 작업에 착수했다. 〈文心雕
龍〉은 전체가 50편이나 되어 분량이 적지 않고
토구해야 할 문제가 많아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서는 그 연구작업을 도저히 완결지을 수가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일
단 시작해 놓으면 연구 방법이나 연구 방향을
학계에 제시하는 구실을 하게 되므로 하는 데까
지 해보기로 하고 꾸준히 작업을 계속해 나갔
다. 이 〈文心雕龍〉의 연구작업은 일이 극히 치
밀해서 진척이 빠르지 못하고, 40대 전반 한창
나이의 건강한 몸이기는 했으나, 가끔 피곤해짐
을 느끼기도 하였다. 귀국 후에 이때 연구한 것
을 정리하여 “文心雕龍疏證”이라는 제목으로 〈東
亞文化〉에 연재 발표하였다. 나는 〈文心雕龍〉
이외에 〈陶淵明集〉의 역주와 해설을 쓰기 위한
준비작업도 해 가지고 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 이외에 이 때 중앙연구원에 와 있
는 외국 학자들과도 학문적인 교류를 도모해야
해서 사실상 적지 않은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도 소비해야 했다.

'65~'66년에 걸쳐 중앙연구원을 방문하여 상
당 기간 체류하면서 연구에 종사한 외국 학자
들이 의외로 많았다. 하바드대학의 하이타워 교
수는 陶淵明詩를 영역하기 위해 나보다 좀 늦
게 중앙연구원에 왔다. 하이타워 교수와는 구면
이어서 연구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었다. 그는 먼저 陶淵明(365~427)의 〈飲酒〉

詩 20수를 영역 해설한, 원고의 부분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읽어 보니 고치고 조정해야 할 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陶淵明集>의 역주 준비를 할 계획도 있고 해서 하이타워 교수에게 陶詩 전체를 王叔岷 선생과 함께 셋이서 철저히 검토하는 일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의하였다. 王 선생은 다시 대만대학에 돌아와 있었고 매주 1회씩 중앙연구원에 나왔다. 하이타워 교수가 내 제의에 동의하여 王 선생과 의논했더니 쾌히 승낙해 주었다. 王 선생도 대단한 陶詩愛好家였다. 매주 2회 오후의 2시간을 잡아 陶詩의 첫편인 <停雲>부터 검토해 내려갔다. 중국·미국·한국의 서로 다른 세 나라의 학자가 모여 陶淵明의 시를 읽고 검토해 나갔는데 각기 시적이 달라 제기되는 문제가 의외로 많았다. 중국어를 공용어로 하였다. 王 선생은 시에 대한 이해가 깊은 메다가 박학하기가 이를 데 없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게 하는 데 계속 힘이 되어 주었다. 특히 용어의 출처 내지 용례를 탐색해 내고 유사한 표현간의 차이를 구명하는 일들로 王 선생은 우리를 크게 감탄시켰다. 우리는 거의 반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陶詩를 한차레 남김없이 토구하였다. 하이타워 교수는 이때의 경리를 토테로 하여 거기에 재삼 검토를 가한 후에 陶淵明의 詩 전체와 그의 辭賦를 역주 해설한 *The Poetry of T'ao Ch'ien*을 *Oxford Library of East Asian Literatures*의 하나로 출간하였다. 王叔岷 선생도 그 후 藝文印書館에서 <陶淵明詩箋證稿>를 냈다. 나는, 역주해설은 준비하였으나 아직 단행본으로 내지는 않았고 귀국 후에 “陶潛五言詩疏證”을 <大東文化研究>에 발표하였다. 중앙연구원에서의 陶詩讀會는 길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당시 또 예일대학의 프랑켈 교수가 중앙연구원에 와서 영문으로의 中國詩歌選譯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陶詩讀會의 소식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도 讀會를 갖게 해달라고 하여 張秉權·하이타워·나 3인이 1주 1회 2시간씩 해서 프랑켈 교수가 선정한 詩詞를 읽고 검토를 가해 나갔다. 프랑켈 교수의 중국인 부인은 음악과 문학에 재주가 뛰어난 여성이었는데 독회의 녹음을 듣고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 제목을 발견하면 기회를 만들어 으레 이의를 제기하고는 했다. 이와 관련된 프랑켈 교수의 논저에 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 당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의 원로 고고학자 梅原末治 교수가 殷墟出土의 青銅器를 연구하기 위해 중앙연구원에 와 있었다. 蔡元培紀念館에 유숙하고 있었으므로 식사시간 때면 만나서 학문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梅原 교수는 고령에 시력도 부실했으나 지치지 않고 청동기의 탁본을 계속 만들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시대에 한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고고문화정책에 대해 다소간 냉소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 밖의 미국 南加州大學에서 중국문학의 楊富森 교수와 중국현대사의 워커 교수(현 주한미대사)가 와 있었다. 이들과도 꽤 자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워커 교수는 특히 뛰어난 담화술을 가지고 있어 오랜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흥미진진해서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6

그 후 나는 '70년 가을에 홍콩대학 중문과에 방문교수로 가서 漢魏文朝文, 中國文學批評, 中國詩歌選讀 등을 강의하고 이듬해 가을에 돌아왔다. 이때는 강의 준비에 바빠서 연구를 위해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었다. 그렇기는 하였으나 홍콩대학의 羅傑烈 교수와 잦은 접촉을 가져 詞曲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었고, 또 그로부터 중국의 고전적인 생활예술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었다. '83년 봄에 코레주 드 프랑스(College de France)의 초청교수 자격으로 파리 제 7 대학 한국학과에서 한중 시문학비교연구에 관한 강의를 3개월간 계속하였고, 코레주 드 프랑스 중국학교급연구소의 요청으로 그곳 중국학 분야의 교수들을 상대로 하여 劉勰과 鍾嶸의 詩觀에 관한 강연을 했다. 중국어로 강연을 하고 질의에 응답하였다. 동 연구소에서 敦煌研究室과 道教研究室을 참관하고 적지 않은 자료를 구해 오게 된 것도 한 가지 수확이었다.

이상과 같이 30여 년 동안 자국의 학술기관에 가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한 일들을 회고해 보니

세월이 빠르기도 하지만 흘러간 세월 동안에 학문을 위해 꽤 많이 움직이기도 하였음을 느끼게 된다. 이제 정년으로 서울대학에서 퇴임하게는 되었으나, 나는 다행히 문헌적인 연구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건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강의나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계획 또는 준비한 연구과제들 중에 마무리짓지 못한 것을 차례로 정리해서 발표 내지 출간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힘 닿는 대로 새로운 연구계획

도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 보아야 할 것 같다. 張可久는 만 권의 장서 속에서 읽고 싶은 책이나 골라 읽어 가면서 술과 차를 즐기며 사는 여생을 자랑삼아 써 냈다. 나도 책은 꽤 모아 놓았으나 그 중에 꼭 정독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술은 못 마시니 문제가 안 되고 차도 많이 즐겼다. 읽고 싶은 책을 더 읽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다. *